

워싱턴 '한국전 추모의 벽', 'OC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오류 심각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들 이름을 새긴 워싱턴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이하 추모의 벽)과 '오렌지카운티(O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이하 기념비)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NYT)'는 전날 역사학자 웰 바커와 그 형 에드워드 바커 주니어가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에 오른 미군 전사자들 이름을 확인한 결과 오자 등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1,015 개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으로 육군 상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프레더릭 볼드 이글 베어(Frederick Bald Eagle Bear)는 'Eagle B F Bald'로 이름이 뒤죽박죽으로 표기됐다.

오르지 말아야 할 이름이 오르고 올라야 할 이름이 빠진 경우도 많다. 사인이 한국전쟁과 무관한 245명의 이름이 올랐는데, 하와이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 부동액을 술로 알고 마셨다가 숨진 사람도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60년을 더 살아 손주 8명을 본 사람도 있다.

전사자이지만 이름이 빠진 이들은 약 500명에 달했다. 폭격기 추락으로 숨진 월터 매코드 중위도 이름이 누락된 경우다. 그가 몬 폭격기에는 9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만 추모의 벽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미국 해군과 공군 비행기가 일본 근처에서 충돌해 두 비행기 조종사가 모두 사망했는데 해군 조종사만 이름이 올랐다.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아버지를



▲ 워싱턴 DC,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에서 유가족이 줄이와 연필로 전사자의 이름 탁본을 뜯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둔 바커 형제는 전사자 명단에 오류가 많다고 보고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애초 미국 국방부가 건넨 명단에 오류가 많았고, 추모의 벽 제작 과정에서 별도 확인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전사자 가족이나 전사자 명단과 관련 있는 시민들은 빠지거나 글자가 잘못된 이름에 대해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NYT는 오류를 제대로 고치려면 추모의 벽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전사자 규모를 두고도 나온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전사자가 5만4,246명이라고 밝혔으나 2000년에 3만6,516명으로 바로잡았다. 한국전쟁 기간에 다른 곳에서 사망한 이들까지 합계하는 바람에 전사

자수가 부풀려졌던 것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념해 지난해 7월27일 완공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과 한국인 카투사 전사자 4만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한편 2021년 11월 11일 풀러턴 힐크레스트공원에서 준공된 기념비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바커 형제는 이날 "추모의 벽보다 참전기념비에 있는 오류는 더 심각하다."면서 "한국의 용산전쟁기념관에 있는 한국전 전사자 명비도 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군 전사자 이름 가운데 1만9,324명이 성이나 이름, 중간이름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연구자로 '한국전 프로젝트' (Korean War Project)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바커 형제는 "워싱턴과 풀러턴에 있는 두 기념비 모두 매우 오래되고 부정확한 미국 국방부 사망자 분석시스템(DCAS) 자료를 사용했다."면서 "국립문서기록관리보관소(NARA)법에 따라 DCAS에 한번 기록되면 수정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워싱턴 DC 추모의 벽처럼 기념비도 애초 잘못 기록된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일부 전사자 이름에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군 당국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내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기념비 명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되면 고치겠다'고 밝혔다.

LA평통, 저소득층·탈북 가정 자녀 대상 장학생 선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LA평통)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10~12학년 학생으로 가구 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 가정, 탈북 가정의 자녀이다.

선발 인원은 총 15명이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각 7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장학금신청서, 교사 및 단체장 추천서, 마지막 학기 성적증명서 등이며, 오는 27일까지 이메일(huacla1@gmail.com), 우편, 방문(수신 및 방문 주소: 3660 Wilshire Blvd.

#406, LA, CA90010) 접수할 수 있다. 장학금은 다음달 8일(수) 오후 5시, LA평통 사무실에서 전달한다.

장학 신청서는 LA평통 웹사이트(puada.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LA평통 김정혜 부회장은 "지난 연말 장학금 모금을 위한 테니스대회를 열

고 1만500달러의 장학금을 모았다.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담아 저소득층, 탈북동포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213) 384-6919

KMC Dental Group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